

【논 문】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감상접미사에 대한 고찰

조 혜 진
(한국외대 강사)

0. 들어가는 말

본고를 통하여 우리는 일상 회화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ufijos apreciativos (감상접미사)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접미사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감상 접미사 (sufijos apreciativa) 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접미사는 의미론과 형태론적 기준에 입각하여 크게 aspectuales (양상접미사)와 apreciativos (감상접미사)의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 양상접미사 (sufijos aspectuales): 일반적으로 품사의 변화를 발생 시키거나 (*encabezar*), 기본 어휘의 의미를 변화시켜 새로운 범주의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cocina* / *cocinero*).
- 감상접미사 (sufijos apreciativos): Afectivos, expresivos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품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atito, gordito*). 또한 접미사의 첨가로 인해 기본적인 의미가 결정적으로 변화하거나 다른 대상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즉 원래의 지시적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어휘의 내용이 자주 양화 (*cuantificación*: 일례가 축소접미사, 중대접미사)나 품질변화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tripita / tripa / tripitón*).

한편, 감상접미사 (*sufijos apreciativos*) 는 전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Miranda 1994: 103):

- 축소접미사 (*sufijos diminutivos*): 대상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감정적인 뉘앙스를 담기도 한다.
- 중대접미사 (*sufijos aumentativos*): 대상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비하적인 뉘앙스를 담기도 한다.
- 비하접미사 (*sufijos peyorativos*): 불유쾌함이나 조롱·야유의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이러한 접미사들은 확고한 규칙이나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서로 조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중대접미사 + 비하접미사), 이들의 의미 또한 기본 어휘의 의미에 바탕하고 있으므로 기본어휘와 접미사의 확고한 의미적 경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렇게 *aspectuales / apreciativos* 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 비하접미사나 양화접미사가 첨가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기본 어휘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pelotazo* 의 의미가 *pelota* 와 다른 것처럼).
- 어휘의 지시적인 의미만을 고려한다면, 감상접미사는 부차적이고 생략가능

하므로 부수적인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pelotazo* 의 -azo 나 *cubata*의 -ata 를 생략할 경우 어휘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을 고려할 때, 이들 또한 양상접미사 (sufijos aspectuales) 에 못지 않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양화접미사의 대부분이 ‘어휘화 (lexicalización)’ 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각기 다른 지시적 의미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boca* / *bocaza*, *paloma* / *palomita*), 이는 양상접미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형태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혀 다른 종류의 접미사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양화와 양상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접미사도 존재한다 (-ón: *tazón* / *blusón*).
- 감상접미사가 경우에 따라 품사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사실 또한 혼동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saltarín* 의 -ín 이나 (동사 → 형용사), *vacilón* 의 -ón (동사 → 명사), *llorica* 의 -ica (동사 → 형용사) 등은 어휘의 품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본 어휘의 문법적인 성 또한 변화시킨다 (*cazo* / *cazuela* [남 → 여], *botella* / *botellín* [여 → 남], *botica* / *botiquín* [여 → 남]). 이러한 현상들을 성의 변화가 없는 다른 접미사들의 형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론적 변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specto*(相)라는 기준이 접미사들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의미론적 (때로는 형태론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준의 적용이 매우 확고하고 안전한 분류방법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고에서 예로 제시하는 접미사들과 어휘, 화맥 등은 특히 유럽 스페인어에 기준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바이다.

1. 접미사의 분류와 지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aspectual* / *apreciativo* 의 기준을 잠시 접고, 본 장에서는 엄격하게 의미론적인 기준을 통해 접미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접미사들을 의미의 종류와 기능, 화자와의 연관관계 (지시적, 양

화적, 비화적, 연결적)에 따라 새로이 분류할 수 있으며, 접미사의 이러한 분류는 전형성의 정도 (각 형태의 복합 가능성의 정도), 언어 기능 (지시기능 / 표현기능 / 호칭기능) 등의 기준에 의거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접미사들은 지시접미사 (*sufijos referenciales*), 양화접미사 (*sufijos cuantitativos*), 비하접미사 (*sufijos despectivos*), 연결접미사 (*sufijos conexivos*)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시’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언어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ibrería*, *zapatería* [-*ería* ‘장소’를 의미] / *bibliotecario*, *pianista* [-*ario*, -*ista* ‘행위자’를 의미]). 여기서 우리는 접미사가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화에서 단순한 지시적인 기능만을 담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접미사들이 현실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할 지라도 (0.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미사의 기능이 현실을 ‘지시’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시접미사 (*sufijos referenciales*)는 파생이나 어휘화 과정을 통하여 이미 다수 어휘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의미와는 다른 ‘지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더욱이 어휘화가 발생한 기본 품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소’를 의미하는 -*ería*는 명사 *huevería*, *librería* 등의 형태를 파생시키는데, 명명과정을 거쳐 새로운 명사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시기능’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접미사는 문법적인 성과 의미에 변화를 초래한다 (Lang 1992: 136). 따라서 위의 -*ería*는 양상의 의미와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시접미사의 범주에는 다른 여러 접미사도 포함되는데, ‘행위자’를 지시하는 -*ario*, -*ista*, -*ero*, -*dor* 등이 그 쉬운 예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미사들이 직업을 의미하는 명사나 형용사들을 구성한다 (*panadero*, *labrador*, *violinista*, *enfermero*, *guerrero*, *carnicero*...).

동시에 위의 접미사들은 비하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화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telonero*,

pesetero, dominguero, teatrero, socialero, futbolero, puñetero...). 위의 표현들로 화자는 원래의 어휘로는 나타낼 수 없었던 (*teatro, peseta...*) 부정적인 뉘앙스의 접미사를 첨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외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미사의 비하적 기능은 양상접미사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로 인해 양상접미사와 비하접미사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는 한다. 이는 E. Bajo (1997) 같은 학자가 주장한 바이지만, 그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근거 있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어휘 해석상의 문제로, 비하접미사와는 달리 양상접미사는 기본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발전하고 품사의 변화까지 야기하기 때문이다.

2. 감상접미사 (sufijos apreciativos) 의 기능

감상접미사는 크게 양화접미사, 비하접미사, 연결접미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모두 화자인 ‘나’의 존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함축·표현하고 있으며, 양화 표현을 한다던가, 대상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혹은 청자에 대한 호소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이들의 경우, 기본 어휘의 지시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1. 양화접미사 (sufijos cuantificadores)

전통적으로 양화접미사는 축소접미사와 증대접미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실제의 화맥 밖에서도 대상의 자질이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양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에 쉽게 부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culpita, penita, pecadito*). 또한 발화된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가치 판단이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미사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휘화될 수 있다. 즉,

양적인 표현을 함축하고 있는 *sillón*, *sombrilla* 같은 어휘들의 양화적인 의미가 화석화되고 중화되다 보면 어휘화되어 정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들을 Monge (1996: 46) 는 ‘*vocablos adultos*’ 로 분류하며, 의미상의 특화과정을 겪었으므로 ‘*vocablos nativos*’ 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우리는 어휘화 과정을 기존의 의미를 연결하는 데에만 그 사용이 국한되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휘의 점미화나 접두화, 합성 등의 과정은 통사적인 차원에서 어휘적인 차원으로 변형하는 세 가지 방법들이고, 또한 분리되어 있던 요소들이 단어라는 범주에서 통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Alvar / Pottier 1983: 361). 이러한 어휘화가 양화접미사의 첫 번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양화접미사들의 의미론적인 특성외에도 특히 축소사들은 발화라는 측면에서 부가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다채로운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화접미사의 두 번째 기능이라 하겠다.

세 번째 기능으로, 이들 양화접미사들은 대화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의미의 강화 (*intensificador*) 나 약화 (*atenuador*) 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접미사들이 화자에 따라 방언의 표지로서 작용하여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능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양화접미사는 매우 중간적인 범주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원래의 의미가 화석화된으로써 지시적 의미에 매우 근접할 수도 있고, 또는 순전히 가치평가적인 의미만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축소사의 경우, 엄격하게 품질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함축으로 해석된다.

2.1.1. 축소접미사 (*sufijos diminutivos*)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축소사는 양화접미사의 중심축에 해당한다. 그

러므로 이 접미사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2.1.1.1. -ITO, -ITA

현대 스페인어에서 *-ito*, *-ita* 는 함축된 의미나 표지가 없음으로 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이다. 다른 축소접미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언적인 표지도, 익살이나 장난, 비하적 의미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

라틴어에서 현대 스페인어에 이르기까지 *-ito* 형이 가장 지배적인 형태의 접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ito* 는 어휘화에도 매우 간편한 형태이다 (일례로 이미 지시적인 의미를 획득한 *palomita* 를 들 수 있다). 일단 *-ito* 접미사도 접미사의 대표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양화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양이나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은 명사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casa / casita*), 자질을 축소시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형용사들도 문화적인 잣대에 따라 크게 긍정적이거나 (*delgadito*) 부정적으로 (*gordito*) 분류된다.

축소는 규모나 범위 (*plátito*), 양 (*poquito*) 의 표현에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용된 화맥 (*contexto*) 에 따라 달라지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축소접미사는 축소나 감소를 의미하는 특정 어휘와 사용되는 경우, 오히려 자질을 증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cortito* 와 축소 표지가 없는 형용사 *corto* 를 비교할 경우, 축소접미사가 ‘더 짧은’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poquito*, *pequeñito*, *prontito* 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의미가 증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양화접미사는 감정이나 관심, 호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부추기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Zuluaga (1970) 는 ‘작다’ 라는 개념을 최대화하는 기능과 ‘감정적’ 뉘앙스를 부가하는 기능을 상반적인 개념으로 간주한 바 있다.

언뜻 보면 감정적 뉘앙스가 축소접미사들의 의미의 일부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축소화는 화맥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정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화행이나 발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완벽한 비하접미사라고 할 수 있는 *-ucho*, *-ucha* 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은 의미론의 수준, 즉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담화의 실현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축소접미사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인 화맥없이 화자에게 질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미의 축소와 연관시켜 대답할 것이다 (*perrito*, *carita*, *delgadito*, *manita*, *muñequita*...). 그러나 특정한 화맥에서 이 축소적인 의미는 감정이입에 의하여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정 표현은 “대상의 차별화”, “대상을 부각시키는 역할” (Amado Alonso 1974: 163), 즉 강조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화에서 사용되는 축소접미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감정표현기능: 축소사는 담화의 비형식적인 성격이나 화자들간의 밀접한 관계와 더불어 문장을 표현력있고 감상적인 어조로 탈바꿈시키는데, Amado Alonso (1974: 165-169) 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을 “dominante emocional”, “expresivo de un temple afectivo”, “una visión subjetiva”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어조는 화자들간의 애정이나 관심, 대화를 유지시키는 우호적인 관계를 대변하면서 상대 화자나 객체를 지시한다.
-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 표현: 감상접미사가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거나 (*es un manitas* / *es un manazas*), 부정적이거나 비하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mado Alonso (1974: 167) 는 “la situación, las actitudes varias de los hablantes, las relaciones coloquiales, las condiciones rítmico-melódicas y el modo de ser llevado al tema, orientan

en cada caso sobre la cualidad del afecto”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Cómo le va a tu vecinita esa?” 라는 표현에서 축소사는 적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의미완화기능: 위의 두 기능 이외에도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어휘의 의미를 완화(atenuación) 시키는 접미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단순한 발화를 대화와 의사소통 기능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담화라는 측면에서 축소사의 특정 기능이나 가치는 의미의 완화기능에 집중되는데, 이는 화자들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사회적 예절(cortesía)을 지키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A. Briz 1998). 따라서 화자-청자 간의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과의 대화시 여러 단계의 동의과정을 거치며, 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보인다. 의미의 완화(atenuación)는 여러 다양한 언어도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양한 조동사 이용, 조건법 등), 이 중에 축소접미사가 포함되는 것이다. 축소사는 주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어휘의 세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Briz 1998).

양적인 개념 (실제이든 감상이 섞인 표현이든 간에)의 감소는 다음의 예에서 보다시피 청탁이나 부탁의 표현을 유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1. (신발가게에서 어머니가 신발을 신어보는 딸에게)
Da unos *pasitos* más. ¿Qué tal? ¿Te encuentras cómoda?
2. Hijo, trae dos *kilitos* de tomates.

반면, 제시한 의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축소접미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3. Podemos dar una *vueltecita* este viernes.

또한, 자질의 축소화는 화자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미지에 대한 서술을 유화 (혹은 역설적인 강조) 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4. No me vengas otra vez con *bromitas*, es que estoy enfadada contigo.
5. Su piel *blanquita* no va con este color, señora.

4에서는 자신의 기분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5에서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 축소접미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축소접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언어상의 ‘예의 (cortesía)’ 라고 간주할 수 있다.

완화접미사 (*sufijos atenuates*) 로 분류되는 축소접미사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며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감정 표현에도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 호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쓰인다. Amado Alonso의 표현에 의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축소접미사는 반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강조적인 뉘앙스를 띄기도 하며, 강조의 기능과 반어적인 표현은 화맥과 발화에 의해 좌우된다.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하여 제공된 커피를 마신 손님의 표현을 한번 상상해보자.

6. Este café está *un poquito* salado.

접미사 *-ito* 는 자질이나 양, 크기라는 측면에서 현저한 축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아기나 어린이들을 지칭하거나 이들과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ojitos, cosita, pobrecito, Luisito, perrito, gatito, casita, comidita...*).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poquito, prontito, pequeñito* 등은 축소접미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자질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정부가적인 가치는 발화시 사람이나 사물에 공히 사용되는데

(*manitas*, *perrito*, *comidita*, *cosita*...), 담화를 감정적·주관적인 어조로 변화시키며 화자들간의 원근 관계나 대화의 비형식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표현은 *Luisito* 같은 인명에 강하게 나타나며, *mamáita*, *abuelita* 같은 호명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실제적인 축소개념은 중화된다.

7. ¿Qué me dices de tu *hijita*?
8. Recuerdo que su niña tenía los *ojitos* azules.
9. *Jaimito*, déjale la pelota a tu hermano.
10. Mira tus *manitas*: están sucias.
11. Pero, *abuelita*, tenga cuidado con el cuchillo.

또한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치 표현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청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축소접미사의 완화기능이 등장한다 (*bajito*, *gordito*, *delgadito*...). 때로는 긍정적인 가치를 겸손의 표양으로 (*guapita*), 자신이 차지한 양에 대한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orbito*, *bocadito*, *pedacito*...) 축소접미사를 이용해 평가절하를 시도하기도 한다.

12. Sí que yo era *guapita*, aunque ahora estoy un poco *gordita*.
13. Aquí está el *pastelito*; lo he hecho por ti.
14. Pero he comido sólo dos *trocitos*.

위의 예문들의 경우, 감정적인 뉘앙스가 역력하며 이는 어떤 상대와 대화하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사회언어학적으로 이러한 축소접미사는 특히 어린이들과 연만한 여성들의 언어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¹⁾.

1) 사회언어학적으로 여성의 언어는 ‘감성적’, ‘감정적’, ‘예의’ 등의 특성에 좌우되므로 이를 위한 축소사의 사용이 빈번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Fontanella 1962: 570; López y Morant 1991: 102).

15. Hijo, habrás hecho alguna *cosita*; si no, tu madre no se enfadaría tanto contigo.

15의 경우, *cosita* 의 *-ita* 는 화자의 단언이나 질책, 부정적 암시를 유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도 화자의 주관이나 감정 표현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꼬거나 반어적인 의도를 띄고 있으며, 이는 성조 (entonación) 에서도 반영된다. 따라서 축소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강조하거나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16. Oiga, éstas no son *horitas* para llamar a una casa decente.
17. Con los *añitos* que ya tienes, pues, no debes hacer estas cosas.

2.1.1.2. -ILLO, -ILLA

접미사 *-illo*, *-illa* 도 *-ito* 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또한 어휘화(lexicalización) 에 매우 수월하고 (*cuchara* / *cucharilla*), 기본어휘의 성의 변화도 비교적 쉽게 유발된다 (*zapato* / *zapatilla*). 이러한 경우, 규모나 양을 축소시키는 기능은 중화되거나 사라진다.

-illo 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질 (*feílo*, *picardillo*...) 과 크기 (*escobilla*, *boquilla*...) 를 축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8. Mario es un poco *feílo*, pero es como un cacho de pan.
19. Tienen una *boquilla* así los corderitos.

18 에서 화자는 제 3 자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feílo* 를 부정적인 자질에 대한 축소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접미사 *-illo* 는 가치 절하나 비하, 경멸, 폄하 혹은 동정의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20. Se quedó viuda la *pobrecilla*.

21. Es un *musiquillo* de profesión.

2.1.1.3. -ÍN, -INA

접미사 *-ín*, *-ina* 는 주로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 지방에서 사용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Botiquín* 과 같이 어휘화되어 기본어휘의 의미는 중화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품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saltarín*, *banderín*, *patín*...). 또한 긍정적이거나 (*guapín*) 부정적인 의미를 (*pillín*, *tontín*...) 약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다른 접미사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어휘와 함께 쓰일 경우, 기본어휘의 의미를 강조·부각시키기도 한다 (*poquitín*).

발화시 경멸이나 우롱의 의미 없이 호감을 표현하며 인명이나 호칭에 부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ito* 와 유사하다.

22. ¿Ya te has vuelto del cole, *pequeñín*?

23. ¿Me pones un *poquitín* más (de leche)?

2.1.1.4. 기타 접미사

위에서 언급한 접미사들 외에도 다양한 축소접미사들이 사용되지만, 이들 중 *-ico*, *-ica* 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접미사들에 비해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아라곤, 무르시아, 안달루시아 동부와 중남미 전역에 걸쳐 사용되며 (Lang 1992: 147), 매우 구어체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발화시 의미완화기능이 돌보인다.

24. Tu tía era *llorica*.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우 지시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자질들과 함께 사용되며 비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즉 *pesetero* 의 *-ero* 나 증대사 *-aza*, *-ota*처럼 축소의 의미와 비하의 의미가 혼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자질의 비하는 다른 형용사들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lloroso / llorica, cobarde / cobardica*).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경우 성의 차이를 유지하는 *-ero (telonero, -ra)* 와는 달리 양성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un / una cobardica*).

접미사 *-ete, -eta* 도 다른 접미사들과 차별적인 용법을 보인다. A. Miranda (1994: 123) 가 지적한 바와 같이 *-ete, -eta* 의 사용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폄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Lang (1992: 143) 은 *-illo, -illa* 보다 표현력에서 뒤떨어진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비하나 변형, 유머스런 뉘앙스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조합상의 제약이 많지만, *-ete, -eta* 는 생물이나 (*amiguete, noviete, ramillete*) 무생물 어휘에 (*palacete*) 모두 접합되어 사용된다.

25. Así que ése es tu *amiguete*.

26. Su *noviete* pudo conseguir el puesto que quería, aunque era muy joven.

27. No te me quejes del piso, ya que vives en un *palacete*.

2.1.2. 증대접미사 (sufijos aumentativos)

증대접미사는 양이나 크기 (*casaza*), 자질을 (*guapote*) 확대·증대시키는 양화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가치는 화자가 발화에 대해 가지는 주관이나 판단에 근거하므로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반영된다. 이러한 용법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축소사의 경우처럼 반어적으로 경멸이나 폄하의 뉘앙스가 부가되기도 한다 (*muchachote, guisote, feote*).

축소접미사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지시적인 의미와 비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축소접미사와는 달리 확대된 의미를 유지한 채 수월하게 어휘화되며 (*tazón, guasón*) 품사의 변화 또한 유도한다. 한편, 어휘화의 과정에서 기본어휘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callejón, islote*).

2.1.2.1. -AZO, -AZA

접미사 *-azo, -aza*의 경우, 의미가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접미사가 동시에 부가될 가능성 또한 높다 (*-ón + -azo: mariconazo, cabronazo*). 복합형이 많다는 사실은 어휘화나 성의 변화 또한 수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manotazo, tortazo, portazo*).

물론 이들은 양이나 (*cuerpazo, filetazo*) 자질을 (*buenazo, morenazo, padrazo, exitazo, madraza*)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주관적인 평가나 발화의 여조를 결정하는 화자의 감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marido / maridazo, padre / padrazo*). 따라서 단지 양적인 평가 뿐만이 아니라 화자의 개성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azo*는 ‘사물이나 도구로 발생하는 충격·타격’의 지시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남성형이다 (*martillazo, tortazo, codazo, bastonazo*).

28. ... y me dió mi novia un *tortazo* que no veas.

29. En la Edad Media, el *espaldarazo* formaba parte de la ceremonia para armar caballero a alguien.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증대접미사는 대상의 비하를 가리키기도 하므로 (*vinazo, braguetazo, bocazas, manazas, calzonazos*), 기본 어휘의 부정적인 의미를 극대화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서도 어휘의 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담화적인 관점에서 이 접미사의 증대나 비하적인 의미부여기능은 제외하더라도, 증대접미사는 반복이나 성조를 이용함으로써 강조·부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A. Briz (1998: 114)의 주장에 따르면, “표현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30. Soy una *manazas*, y en el colegio siempre suspendo los trabajos manuales.

31. Aunque en la oficina sea muy severo, con sus hijos es un *padrazo*.

이러한 강조의 기능은 자신의 표현이 진실이라는 확신과 상대 화자를 설득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2.1.2.2. -ÓN, -ONA

이들의 특징 또한 수월한 어휘화와 접미사의 중복사용이라 할 수 있으며 (-ito + -ón: *tripa* / *tripitón*), 화맥과 기본 어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이들은 양이나 자질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cabezón*, *tazón*, *velón*), 때때로 품사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bailón*, *preguntón*, *criticón*). 대부분의 경우, 자질의 확대라기보다는 작용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화 과정을 거쳐 기본 어휘와는 다른 지시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지만 (*cuarentona*, *cincuentón*), 축소사와는 달리 의미강조기능은 더욱 부각되는데, 이는 인간의 자질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특정 행위의 도구나 수단 (*tapón*) 혹은 -azo 의 경우처럼 명사화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pisotón*, *apretón*).

세째, 동사나 명사를 기본으로 하여 부정적, 비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contestón*, *cabezón*, *maricón*, *tetona*). 이는 기본어휘의 의미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에 강조적인 뉘앙스를 부가하기 때문이다.

32. Es un niño mimado y *contestón*.

33. El muy *maricón* me estafó.

*Maricón*의 경우, 기본어휘인 *marica*에 비해 강조적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이미 어휘화과정을 거친 듯하다. *Contestón*의 경우, 동사 *contestar*를 기초로 품사의 변이가 이루어졌으며, 중대적인 의미에 폄하의 의미가 부가된다. 강조의 기능은 통사적으로 반복이나 유표적인 발음 등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

2.1.2.3. 기타 접미사

먼저, 접미사 *-udo*, *-uda*는 자질이나 양을 증대시키는 기능외에도 (*tozudo*, *concienzudo*) 인간의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명사에 자주 비하의 의미를 부가하기도 한다 (*huesudo*, *melenudo*). 그러나 기본 어휘가 지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남성성을 부각·강조하기 위하여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cojonudo*, *huevo*).

한편, 접미사 *-ote*, *-ota*는 *-uelo*와 마찬가지로 매우 특징적인 중대 접미사이다. Miranda (1994: 116)와 Lang (1992: 55)은 이 접미사의 표현력과 재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Bajo (1997: 58)는 단순히 양화적인 특성보다는 “관용의 의미가 포함된 호감”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첨가된 이들은 엄격하게 자질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익살이나 유머스러운 어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monigote*, *feote*, *guisote*, *pasmarote*).

-ote, *-ota*는 중대접미사 *-azo*와 마찬가지로, 일상회화체에서 비하의 의미가 섞이기도 하며 (명사로서 신체나 외모상의 결함을 강조한다), 품사의 변화나 어휘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narizota*, *gafota*, *cabezota*). 이러한 경우, 부정적인 자질을 강조하게 되므로 욕설로 사용되기도 한다.

2.2. 비하 접미사 (sufijos despectivos)

전형적인 비하접미사는 부정적인 자질을 강조하는 가장 확실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미사들의 사용은 대상에 대한 ‘나’의 관점과 주

관, 형태를 변화시키는 기준 등, 화자의 표현력이 좌우하게 된다. 비록 Amado Alonso (1974: 165)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는지는 몰라도, 비하 접미사들은 그 기본 어휘와 비교할 때 표현력을 매우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vivo* 는 형용사로서 객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지만, *vivaracho* 는 그 외에 화자의 주관적 평가와 폄하적 어조를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담화의 측면에서, 화자가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접미사들을 추가하는 목적은 결국 지시된 사물에 대해 내리는 청자의 평가와 그들이 나누는 대화 방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비하접미사에서는 어휘화나 품사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적이고 폄하적인 어조를 부각시키는 음성이나 성조의 변화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ucho*, *-usca*, *-udo*, *-uelo* 등이 지니는 *-u-* 음과 *-arro*, *-astro* 의 진동음, *-aco*, *-ongo* 의 연구개음, *-ucho*, *-acho* 등의 파열 경구개음이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비하접미사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ucho*, *-ucha* 는 문화·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개념에 부가되는데, 이들의 부정적인 느낌은 그 의미에 반영된다 (*delgaducho*, *feucho*).

-acho, *-acha* 에서도 비하적인 뉘앙스가 분명하지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본어휘에 모두 사용된다 (*vivaracho*, *amigacho*).

-astro, *-astra* 는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를 기본으로 하며, 이들에게 부정적인 자질을 강조하고 폄하의 뉘앙스를 부가한다 (*policaastro*). *Padraastro*, *hijastro* 등은 이미 어휘화된 형태이다.

-aco, *-aca* 또한 *negraco*, *tiaco* 등의 어휘에서 발견된다. 특정 어휘에서 *-aca* 는 양성 모두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기본어휘를 단축하고 *-aca* 를 부가시켜 속어에서 자주 쓰이는 여성형으로 정착된 경우이다 (*sudaca*, *peraca*). 이것은 *-ata* 에 비견될 수 있는 연결접미사로 간주되

기도 하는데, 비하접미사 *-aco* 와 동일한 형태로 *austriaco*, *guatemalteco* 등의 연결접미사 *-aco*, *-aca* 가 그 예이다.

반면, *-uco*, *-uca*, *-usca*, *-uzo*, *-uza* 등의 비하 접미사들은 현대에 이르러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접미사 *-arro*, *-orro*, *-urro* 는 일상회화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며, 고유명사까지도 이들 접미사와 사용되고는 한다 (*Pacorro*). 또한 성적인 주제나 분노를 지칭하는 어휘와 사용되는 경우, 매우 저급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pedorro*, *putorra*). 이러한 경우, 부정적이지만 익설스러운 느낌을 강조하며,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의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다. 기본어휘가 긍정적이거나 중성적인 경우 (*listorro*, *vidorra*), 부정적인 뉘앙스를 눈치채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만으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신생 접미사들로 *-eras*, *-ale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etas*, *-otas*, *-azas*처럼 복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롱조를 띄고 있다 (*loqueras*, *volanteras*, *guaperas*).

-eras 는 양성 모두에 통용되며 복수의 의미를 지니는데, 형용사나 명사를 형용사화한다. 형용사와 사용될 경우 품사의 변화 없이 비하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반면, 명사와 쓰일 경우, *-ero* 자체의 행위자적인 뉘앙스를 유지하면서 품사의 변화 또한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접미사 *-ales* 는 형용사와 사용되므로 품사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gordales*, *viejales*). 위의 *-eras*처럼 비하적인 뉘앙스는 보이지 않고, 다만 화자의 호감이나 장난기를 내포하고 있다.

2.3. 연결 접미사 (sufijos conexivos) 와 어휘화

연결접미사는 원래 청자나 화자가 속한 집단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접미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계층적 표지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시적, 양화적,

감상적 기능과 비교하자면, 이들은 공용어를 변화시켜 특정 집단의 차별적이고 고유한 명칭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한 형태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ata* 를 들 수 있는데, 최초에 범죄자들의 은어에서 등장하였으나, 이후에는 젊은이들의 은어로 사용되었다 (*culata, cubata, pribata*). 명사나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행위를 가리키거나 (*broncata*) 행위자를 나타내게 된다 (*camarata*).

34. Está borracho porque se ha tomado varios *cubatas*.

35. Me gustaría comer un *bocata*.

문제는 이러한 접미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회 소외 계층의 특정 언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표준어에 포함되어 그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Sanmartín 1998b). *-ata* 의 경우, 젊은이들이나 범죄자들만의 은어라기보다는 표준 스페인어에 흡수된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이 접미사가 표준어에 흡수되었더라도 애초에 이 접미사를 사용하던 집단에서 지시하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특정 은어에서 사용되지만 표준어에는 흡수되지 못한 접미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집시들의 언어에서 사용되던 *-iri* (*campiri*) 와 소외계층의 은어에서 등장하던 *-elar* (*fumelar*) 가 있다.

-eto 또한 비슷한 접미사로 (*bareto, careto*), 젊은이들간의 동질감을 유발하며 그들간의 동지의식 유발이나 속어상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

36. Cuando se levanta tiene un *careto* que asusta.

3. 나오는 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현 스페인어의 접미사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았다. 개별적이고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품사와는 상관없는 접미사

의 의미를 근본적인 기준선으로 삼았고 언어 기능과도 (지시, 감정표현, 명칭) 연관시켰다. 그리고 품사나 성의 변동 또한 감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접미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1) *지시접미사 (sufijos referenciales)*: 이들은 지시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화자 개개인의 주관적 표현은 함축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들 (행위자, 장소, 추상적인 개념 등) 을 표현하며 어휘화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ería (cafetería, huevería)*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접미사의 일례라 할 수 있고, *-ero (camarero, jornalero)*는 주로 행위자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비하적인 뉘앙스를 띄기도 한다(*teatrero*). 비하적인 의미는 기본어휘와 분리되어 *-eras (guaperas)* 라는 비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접미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eras* 는 애초에는 지시적 접미사였으나 우롱적이며 비하적·강조적인 의미가 첨가되어 양성에 모두 사용되는 접미사들 중 하나이다.

2) *양화접미사 (sufijos cuantitativos)*: 이들은 증대접미사 (*sufijos aumentativos*) 와 축소접미사 (*sufijos diminutivos*) 로 분류되며 사실상 본고에서 살펴본 모든 접미사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양화라는 과정이 화자의 주관이나 가치평가를 일정부분 포함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시접미사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어휘화되어 양화적인 의미를 상실한다 (*cucharilla*). 한편, 두 가지 방식으로 비하적인 의미로의 변이가 발생한다. 축소접미사 *-uelo (tiranuelo)* 나 증대접미사 *-udo (concienzudo)* 의 경우처럼 비하적인 의미가 단순히 첨가되는 경우가 첫번째 방법이고, 두번째가 *-ica (marica, llorica)*나 *-azas (bocazas), -otas (pasota)*처럼 비하의 의미가 담긴 변이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된 변이형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애초의 기능과는 상관없는 형태이며, 기본 어휘의 품사를 변화시키고

형태나 구조적 변이까지 초래한다.

한편, 증대 접미사들은 좀 더 수월하게 비하접미사가 된다. 이는 증대라는 개념을 과도함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반면 호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축소접미사들은 비하적인 느낌에 치우치지 않는다.

3) *비하접미사 (sufijos despectivos)*: 이들은 언급된 바에 대하여 화자(주체)의 생각을 대변한다. 따라서 이들은 표현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중심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품사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쉽게 어휘화되지도 않는다(*feote, vivaracho*).

4) *연결접미사 (sufijos conexivos)*: 본문에서 우리는 *-ata* 같은 연결 접미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청자와 화자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준어를 젊은이들 소집단의 독특한 언어 습관으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므로, 자신들만의 언어기 호이자 사회적 정체성을 표면화하는 수단이 된다.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이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대적인 느낌까지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혹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유행어를 익히는데 적극적이고, 다른 젊은이들에게 더욱 수월하게 다가가는 수단으로서 이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젊다’라는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접미사들을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범주가 상호간의 교환이나 중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즉, 한 접미사는 오직 한 범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다른 범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접미사들과 비교해 볼 때, 의미론적인 비중에서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접미사들이 독자적으로 경멸이나 비하의 의미를 지

년 접미사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비하접미사가 다른 접미사들에 비해 매우 우세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접미사가 있는 반면 (*-ería*, *-astro*), 비하의 기능과 지시적 기능 (*futbolero*, *teatrero*) 혹은 양화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 (*cincuentón*) 을 동시에 수행하는 접미사도 있으므로, 이들 접미사들 간의 기능상의 불균형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양화, 지시, 감정이입의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접미사도 발견한 수 있다 (*padrazo*).

본고에서 분류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비하적 어조의 새로운 형태들을 창조해내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은 ‘일반화된 은어’의 특성이 사회전반에 유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상회화체의 특징이란 표현력이 극대화되고 주관적인 ‘나’를 드러내는 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접미사들 중 대다수가 형용사이고 인간을 지칭하며, 결과적으로 인간을 담화의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화접미사의 역할과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의하면 최소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기나 양, 자질의 증가와 축소에 관련된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시적인 기능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표현에 대하여 화자의 평가나 의견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다른 두 가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화맥과는 별도의 자의(字意)적인 의미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화맥과 연계하여 화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반영한 발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담화라는 측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화자들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담화는 대화의 기술들이 전략적으로 사용되며,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화용론적 요소들도 포함된다.

화자는 자신의 단언을 유화시키고,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혹은 의견의 일치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접미사를 완화제로서 이용한다. 표현의 강도를 완화한다는 것은

성(性)이나 문화와 같은 다른 언어외적 요소들과도 연관이 있고, 호감을 표현함으로써 강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축소접미사의 전통적인 기능과도 연결된다.

표현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질이나 양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대상을 비하하거나 훼손시키기도 하고, 부정적이거나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일상 회화에서 축소접미사 *-ito*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방언적으로 무표적이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가장 중성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ete*가 지닌 유머스런 느낌이나 *-uelo*, *-illo*가 지닌 비하적인 어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축소접미사는 여러 기능들이 동시에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담화에 주관적인 색채를 덧씌우는 감정적 기능들이 돋보일 때도 있고, 대화시 화자들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거나 비형식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여성층의 언어에서 특히 호감의 표지로 축소접미사의 과도한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극대화된 표현이 특징인 일상회화에서는 증대접미사나 비하접미사가 반복이나 발음의 강조, *super* 같은 접두사의 사용 등과 교체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일상회화에서 감상접미사(*sufijos apreciativos*)의 등장은 다음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 통사·형태상의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비하의 의미만을 지닌 어미를 창조해낸다. 지시접미사나 양화접미사가 경멸이나 우롱의 의미를 함축하여 쓰이기도 하는 것이 그 일례이다. 둘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을 외면화하고, 담화 참가자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기능이 축소접미사의 사용에서 대다수의 경우를 차지한다.

이렇게 본고를 통하여 살펴본 접미사들은 특히 구어체에서 감정적인 뉘앙스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특성이 현대 스페인어 접미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onso, A., “Noción, emoción, acción y fantasía en los diminutivos”,
Estudios lingüísticos, Temas españoles, Madrid, Gredos,
1974.
- Alvar, M. y Pottier, B., *Morfología histórica del español*, Madrid,
Gredos, 1983.
- Bajo, E., *La derivación nominal en español*, Madrid, Arco Libro, 1997.
- Briz, A., *El español coloquial en la conversación. Esbozo de
pragmagramática*, Barcelona, Ariel, 1998.
- Fontanella, M. B., “El diminutivo en Bogotá”, *Thesaurus, BICC*, 3,
XVII, 1962, pp.556-573.
- González Ollé, F., *Los sufijos diminutivos en castellano medieval*,
Madrid, CSIC, 1962.
- Lang, M. F., *Formación de palabras en español. Morfología derivativa
productiva en el léxico español moderno*, Madrid, Cátedra,
1992.
- López, A. y Morant, R., *La gramática femenina*, Madrid, Cátedra, 1991.
- Miranda, J. A., *La formación de palabras en español*, Salamanca,
Ediciones Colegio de España, 1994.
- Monge, F., “Aspectos de la sufijación en español”, *REL*, 26/1, 1996,
pp.57-71.
- Sanmartín, J., *Diccionario de argot*, Madrid, Espasa, 1998a.
———, *Lenguaje y cultura marginal: el argot de la delincuencia*,
Cuadernos de Filología, XXV, Univ. de Valencia, 1998b
- Zuluaga, A., “La función del diminutivo en español”, *Thesaurus, BICC*,
XXV, 1970, pp.23-48.

【Resumen】

Reflexión sobre los sufijos apreciativos: desde la perspectiva pragmática

Hye-Jin Cho

En este trabajo hemos analizado los sufijos del español actual, sobre todo, los denominados apreciativos, que son usos característicos de la conversación coloquial.

Para empezar, hemos clasificado los sufijos en siguientes grupos: los referenciales, los cuantitativos, los despectivos y los conexivos. Como muestra su denominación, los sufijos referenciales ejercen la función referencial, y aquí no se asoma la subjetividad del hablante. Asimismo, se lexicalizan con facilidad. En los cuantitativos se incluyen los diminutivos y los aumentativos. Junto al aspecto meramente cuantitativo, llaman la atención las variadas posibilidades que ofrece estos morfemas en los campos semántico y pragmático. Por lo tanto, podemos afirmar que los diminutivos y los aumentativos son como los representantes de este campo. Y los despectivos se aparecen cuando el/la hablante intenta exteriorizar su 'yo' hablante. Se destacan por la expresividad y el tono individual. Por último, los conexivos son instrumentos lingüísticos para diferenciarse de otra gente; es decir, son marcas diastráticas. La mayoría de ellos se clasifica como una auténtica jerga de edad en formaciones ajenas al caudal léxico.

Como hemos visto, excepto los referenciales, en estos sufijos se destaca la función expresiva y subjetiva del hablante, y se descubre una tendencia creadora de nuevos sufijos. Al fin y al cabo, el objetivo de la conversación diaria es expresar el 'yo' hablante en una manera más destacada, y orientar al oyente.